

정청래, 노무현 묘역 찾아 “노짱님, 검찰개혁 보고드린다”... 권양숙 여사도 예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통과 이후 봉하마을을 찾아 “검찰청은 폐지됐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예방을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성과 보고를 가져온 건 처음”이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정 대표는 이날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릴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한다”며 “늘 죄송했고 늘 감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짱님, 노사모 회원 아이들 ‘짜리비’ 정청래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당 대표가 됐습니다”며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의 막강한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음을 보고드린다”고 했다.

그는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검찰의 오만함은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다”며 “반인권적 과잉 수사는 멈출 줄 몰랐고 무오류 신화에 빠진 검찰은 성역을 자처했다”고 했다.

이어 “검관의 역사는 반복돼 결국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검찰 공화국을 만들었다”며 “정치 탄압을 넘어 내란까지 자행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78년 무소불위 검찰의 역사가

국회 공소청·중수청법 통과 이후 봉하행... 盧 묘역 참배
“검찰개혁 말할 때마다 盧 생각... 무소불위 檢역사 막 내려”
권양숙 여사 예방... 권 여사 “검찰개혁 성과 보고 처음” 눈물

막을 내린다” 등의 발언과 함께 “검찰이 행사한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 수많은 독점적 권력도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라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법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끝날 것”이라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에 따라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긴 시간 우리가 지지 않았고 검찰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에 노 전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길을 열고 이제 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끝내 걸어온 검찰개혁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진상을 낱알이 밝히고 진실을 바로잡는 것 또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국정조사와 함께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노 전

대통령 앞에,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봉하마을 방문에는 정 대표 외에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함께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한 뒤 권양숙 여사를 비공개 예방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권양숙 여사를 뵈니 마음이 교차한다”며 “권양숙 여사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워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성과 보고를 갖고 온 건 오늘이 처음’이라면서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여사는) 왜 자주 눈물이 나는지 모르시겠다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며 “눈물을 흘리는 여사님을 보면서 저도 또 마음이 울컥했다. 이처럼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못 다 이룬 꿈”이라고 덧붙였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권 여사가) 정청래 대표를 안아보고 싶다고 표현하셨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민주당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게 권 여사의 말씀”이라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당 지도부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를 하고 있다. /뉴스1

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조문록에 “노짱님,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새 더 많은 노무현이 피어났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묘역을 참배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서 “몰염치하고 사악한 언론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임으로 내민 흥기 같은 보도를 많이 했다”며 2009년 당시 SBS의 ‘논두렁 시계 의혹’ 보도를 거론했다.

정 대표는 당시 보도 영상을 재생하면서 “SBS가 그 이후에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 사과한 적 있나”라며 “이재명 대통령

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 연루설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SBS에게 한 마디 한다. SBS 당신들도 언론인가”라며 “당신들의 몰염치, 그것이 알고 싶다. 참 생각할수록 열받는다”고 했다. /뉴스1

민행배 “전남광주 통합 환승요금제 도입하겠다”

단일생활권에 버스·철도 통합 환승요금... ‘남도패스’ 등 4대 정책 발표
50km 이동 서울~경기 3000원 vs 전남~광주 1만원대... “불공정 개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행배 의원(광주 광산구)이 전남광주 요금 체계를 하나로 묶어 통합 환승요금제를 도입하는 교통서비스 4대 혁신 정책을 22일 발표했다.

민 의원은 이날 ▲통합 환승요금제 도입 ▲월정액 통합 교통패스 ‘남도패스’ 도입 ▲농어촌 공공교통 확대 ▲단계적 무상 교통 추진을 제시한 뒤 “교통서비스는 높이고, 교통비 부담은 구조적으로 낮추는 것이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으로 50km를 이동할 경우 서울·경기 간 교통요금은 3000원대인 반면 광주에서 장흥까지는 1만3000원 수준에 달해 4배 가까운 교통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광주를 하나의 요금체계로 통합하고, 버스·철도 환승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환승요금제를 도입해 생활권 내 이동 시 추가요금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근·통학·통원치료 등 필수 이동에 대해서는 체감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해 이동거리가 늘더라도 요금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요금은 시·군마다 나뉘고 환승은 불편한 분절된 구조”라며 “단일 생활권에 맞는 통합 환승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강기정, 광주·전남 ‘1·1·7 통합응급의료망’ 비전 발표

순천 통합 의대 설립, 광주권 꿈의 ‘암치료가속기’ 도입
서부 빅4 종합병원·메디헬스타운, 동부 100만거점 종합병원 설립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시장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1·1·7 통합응급의료망’ 구축과 지역 맞춤형 의료거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1·1·7 통합응급의료망은 1분 안에 이송될 병원을 결정하고, 1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응급 이송 체계 구축과 7분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응급실 뱅뱅이 없는 ‘광주형 응급의료 플랫폼’을 특별시 전체로 확장하고 전남 구급차(Mobile ICU)를 도입해 이송 중 치료를 시작하고, 현재 1대인 닥터 헬기를 추가 도입해 도서·산간 신속 이송 체계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각 가정에 AI 스마트 안심돌보미를 보급하고 마을 안심메니저와 마을 간호사를 양성해 구급차 도착 전 초기 대응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 후보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있는 22개 응급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7분의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며 “섬 지역 원격 협진체계를 구축해 이송 전 초동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아울러 “지역 맞춤형 의료거점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해 ▲순천 정원 100명 규모 통합 의과대학 설립 ▲광주권 중입자가속기 도입 ▲동부권 100만 거점 종합병원 건립 ▲서부권 최첨단 메디헬스복합타운 조성 등 4대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강기정 예비후보가 23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특별시민을 위한 두번째 약속’으로 의료분야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기정 예비후보측 제공

특히, 통합의대와 관련해 “충분한 교육 인력과 인프라 없이 추진되는 소규모 의대는 교육과 의료 모두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분산 설립할 경우 필수교원 확보 부담이 커지고,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

어질 수 있다”며 “정원 100명의 제대로 된 의대를 통해 지역 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확대된다

사업자 5곳 추가 공모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간 앱의 범위가 확대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제공할 추가 민간 사업자 5곳을 오는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행안부가 운영 중인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외에도 삼성웰렛,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등 6개 민간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선정된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올해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사업자는 평가를 거쳐 올해 5월 초 최종 선정 후 내년 3분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총 16개의 앱 중 하나를 선택해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권한과 부정 사용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뉴스1

청산도에서 치유해 봄

청산도 슬로걸기 축제

2026. 4. 1. ~ 4. 30.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산도슬로걸기축제추진위원회

2026 Pre 완도국제

해조류 박람회

기후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미래

2026. 5. 2. SAT - 5. 7. THU
완도군 해변공원 및 해양치유센터 일원

2026 Pre Wando International Seaweed Exhibition